

“관급공사 수주하게 해달라”

군수 부인에게 롤렉스시계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위해 건설업자들이 지역 로비스트를 동원해 지방

자치단체장 주변 사람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여 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호) 송경호 검사는 28일 관급 공사 수주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제3차 뇌물취득죄)로 전 해남군수 민모씨의 부인 윤모(62)씨와 전 진도군청 5급 공무원 박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로 전 시물 설치업체 대표 유모(74)씨와 유씨의 로비를 도운 박모(55·진도군)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유씨와 박씨는 지난 2001년 10월 해남 공동박물관 공사 수주를 위해 당시 해남군수의 부인 윤씨에게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롤렉스(ROLEX) 손목시계(사진)를 준 혐의다.

유씨 등은 또 2002년 1월께 진도 소치기념관 공사 수주를 위해 당시 진도군수와 친분이 있던 전 진도군청 공무원(5급)인 박씨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스트 박씨를 통해 해남군수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인인 윤씨에게 접근해 시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해남군수 부인 윤씨는 뇌물을 준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자 2년 뒤인 2003년 12월 시계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급공사와 관련, 단체장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상행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내사활동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역 토착비리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혼 따지자 가스 폭발시켜 3명 사상

27일 밤 11시55분께 광양시 다남면 금림리 소동마을 정모(65)씨 집에서 가스가 폭발, 집 안에 있던 정씨와 며느리 이모(여·31·광양시)씨가 숨졌다.

숨진 부인 이씨와 함께 아버지 집을 찾은 아들(38)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정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후송중 주민들에게 “아버지가 가스를 폭발시킬 줄 몰랐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내외는 최근 아버지가 한모(여·61)씨와 재혼한 것을 따지기 위해 이날 부친 집을 찾아왔다가 변을 당했으며, 한씨는 자리를 피해 다행히 화를 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재혼 문제를 따지는 아들 내외에 불만을 품고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kwangju.co.kr

완도청소년수련원서 3박4일 체험학습

여중생 50여명 식중독 증세

전남도교육청·보건당국 역학조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체험학습을 마친 여중생 50여명이 집단 식중독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8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간 체험학습을 위해 완도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목포 향도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304명 중 50여명이 설사·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 학생이 목포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학생들은 22일 수련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부터 이같은 증세를 보였다고 도교육청 등은 밝혔다.

퇴소 전날인 21일 수련원 측이 제공한 식단은 ▲아침 : 잡곡밥·김치·참치국·두부 탕수육·잡채·오이·김치 ▲점심 : 쌀밥·두부된장국·닭도리탕·김구이·김치·요구르트 ▲저녁 : 쌀밥·어묵국·콩나물·고등어튀김·김치·단무지 등이다.

이 수련원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 1명이 식사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또 식사시간에는 정수된 물을 끓여서 먹었으나, 수련시간 중에는 극기훈련장 수련원 내 3곳에 설치된 음수대에서 지하수를 패트병에 담아 마시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사와 복통증세를 보인 학생들 모두 증세가 호전돼 현재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받고 있다”며 “식중독 원인이 음식물인지 지하수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 가검물 검사를 의뢰했다”며 “오는 30일께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음식 먹기 전에 꼭 손 씻자”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노로 바이러스’ 때문으로 밝혀지면서 학교마다 용변 후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는 등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광주 진월초교 1·2학년 학생들이 28일 남구보건소가 마련한 ‘손씻기 체험행사’에 참여,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니만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전체 35%...359개교 지하수 사용

노로 바이러스 ‘비상’

시·도교육청 음용수 조사키로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지하수 등 오염된 물에 의해 주로 감염되는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노로 바이러스’경계령이 내려졌다.

특히 전남지역 1천35개 학교의 34.9%인 359개교(분교 272개교, 분교 87개교)가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보건 관계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278개교는 모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급식 실시 학교에서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최근 3년 새 확인된 것만 3건에 이르고 200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앓았다.

지난해 4월 광주 J고 학생 18명이 학교 급식 이후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가검물 조사 결과, 학생

1명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앞서 2004년 12월에는 순천 K여고 학생 160명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을 먹었다가 탈수 증세를 동반한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광주 S여고 학생 37명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을 먹고 심한 설사 증세를 보였다. 당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급식소 내 정수기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전남 초·중·고교 급식소 1천134곳과 외부운반 급식업체 5곳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서 ‘노로 바이러스’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음용수 관리실태와 종사자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26건으로 3천33명의 학생이 피해를 봤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나원침 (6865) 김동주



‘빛자루 폭행’ 교사 해임

광주 E초교는 28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머리를 빛자루로 때려 상처를 입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본보 28일자 7면) 이모(56) 기간제 교사를 교강 직권으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여직원 상습 성폭행에 결혼까지 방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업체 여직원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28일 지난 2001년 직원 이모(여·25)씨를 대전 유성구로 출장을 가져다 유인, 성폭행한 뒤 최근까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로 박모(44·광주시 광산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박씨는 이씨가 지난 5월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자 강제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이씨의 E-메일로 전송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등 결혼을 방해했다고.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페콤씨! 하루 2알 페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Be-Happy, 페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페콤씨

비타민 복합물 신기술 생합성비타민. (112-380-1118 www.k3ba.co.kr)

광고실의전화 076-2000 | 팩은 순국산의약품 | 노로바이러스 예방사원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 문의 02-3421-3000 | 팩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12는 수송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